

## [ 경제 ]

# 한국경제, 어둠의 끝은?

## 경기 회복 전망 논란

일반 국민이나 기업들이 새해에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경기가 언제쯤 바닥을 치고 회복할 것인가이다. 새해 상반기에 바닥을 치고 하반기에는 상승세로 반전할 것이라는 '기대'와 경기침체가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2~3년은 더 갈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이 엇갈리고 있다.

◇ 경제, 여전히 위축 단계 = 전문가들은 대체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면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선진국들이 이제 막 경기침체에 진입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과 일본, 유로 등 선진국들이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은 주택시장이 침체되고 고용여건이 악화되면서 소비가 지속적으로 위축될 전망이고 유럽지역은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신용경색이 걱정이다. 일본은 엔화 강세와 디플레이션 압력 등이 경기 하방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신종시장국들도 마찬가지다. 세계경제가 침체되면서 교역량이 줄고 이는 수출여건 악화로 이어지면서 경제를 탈진으로 몰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영향을 받아 내수와 수출은 동반 부진의 늪에 빠지고 경제

## ① 내년 상반기 바닥 치고 하반기 상승세 전환

## ② 경기침체, 이제 막 시작 ... 2~3년은 더 갈 것

## ③ 예측·분석 어렵고 회복 징후 마저도 안보여

성장이 둔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팽배해 있다.

다면 다행인 것은 내수 침체와 서비스수지 적자 축소 등이 경상수지를 흑자로 만들어 외환시장의 위기를 해소해 가고 있다는 점이다.

◇ "내년이 바닥" 예상 많아 = 국내외 전문기관들은 대부분 내년에 우리 경기가 상반기 바닥을 찍고 그 이후 완만하게나마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한국은행과 정부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와 3%로 내다보면서 상반기

에 가장 심한 침체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연구원도 22일 내놓은 내년 경제전망 수정보고서에서 상반기에 0.2%로 점쳐졌다가 하반기에 3.2%로 회복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수비르 랄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담당 과장은 "내년 1분기에 바닥으로 내려갔다가 중반부터 더딘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달 낸 보고서에서 세계경제는 미국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예상되는 2010년 이후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고 한국경제는 내년 하반기 이후에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 회복 모멘텀은 아직 안보여 = 연구기관들의 이 같은 분석은 그러나 예측이라기보다는 기대라는 평가가 많다.

분석 대부분이 내년 하반기부터 미국 금융불안이 안정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데다 회복이 되더라도 급격히 될지(U자형), 혹은 거의 바닥 상태의 불경기가 상당기간 유지될지(L자형)에 대해서는 누구도 자신있게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세계 교역량이 줄고 주요국의 성장이 마이너스를 기록한다면 수출과 내수, 투자 등은 모두 부진해질 수밖에 없다.

시장의 불안감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전하며 위기의 주요인에 대한 명확한 분석도 나오지 않고 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장은 미국의 주택재고가 300만 채 수준까지 줄어야 불안이 진정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미국 주택재고는 460만 채까지 늘었다가 현재 420만 채 수준으로 줄었다.

우리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부실이, 은행보다 저축은행의 부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낙종이 인형 등 1만여점 전시

2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막한 '2008 서울인형전시회'

를 찾은 관람객들이 개성 있는 인형들을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 고유인형인 낙종이 인형을 비롯해 국제인형예술제에서 수상한 초록인형 등 다양한 인형 1만 여점이 전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 건설·조선사 '퇴출' 앞당긴다

## 금감원장 "내년 초 구조조정 착수"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23일 "금융 불안과 실물경기 침체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아 유통상 애로(자금난)를 겪는 건설업체와 중소 조선사에 대해 내년 초부터 구조조정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를 위해 주요 은행의 해당 업종 담당자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직원 등 7명 내외로 테스크포스(TF)를 오늘 설치해 연말까지 업종별 신용위험평가기준과 세부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

다.

김 원장은 "기본적으로 자금지원과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통한 기업 살리기에 중점을 두되 회생 가능성이 불투명한 기업은 분리적으로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며 "구조조정의 시한은 두지 않고 상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채권단은 신용위험 평가를 통해 기업을 4개 등급으로 분류해 일시적 유통상 부족 기업(B등급)에는 채권단의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대신 자구노력을 담은 양

/연합뉴스

## 건설·조선사 퇴출 공포

## 코스피 35P 급락

코스피지수가 건설·조선업종과 운수 장비 업종의 구조조정 공포와 대형 자동차주의 급락 등으로 연속 하락하면서 1,150선을 내렸다.

23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5.30포인트(2.99%) 내린 1,144.31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수는 11.46포인트(0.97%) 내린 1,168.15로 출발한 뒤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매도로 장중 한때 1,140.32까지 추락하기도 했지만 오후 들어 프로그램 매수의 영향으로 낙폭을 다소 줄여 1,140선을 방어하는 데는 성공했다.

개인은 1천339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31억원과 836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피지수 전망보다 7.28포인트(2.10%) 내린 338.76으로 장을 마쳐 340선에 무너졌다.

반면 원·달러 환율은 이를 연속 급등하면서 1,330원대로 진입했다.

23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달러당 29.00원 급등한 1,338.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이틀간 48일 급등하면서 5거래일 만에 1,330원대로 복귀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Recruiting Gwangju Network - 062.JOBKOREA.CO.KR™

## 함께 일합시다

업체명	모집분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나리건설(주)	경리, 회계, ERP 경력직	고졸/경력5년	1400~1600	12/26	062-972-9612
씨큐어넷	신한카드 광주고객센터 정규직 인바운드 상담원	고졸/경력무관	1800~2000	12/29	011-965-9696
(사)한국능률협회	(사)한국능률협회 협회지부 인재	대출/경력2년	1800~2000	12/30	02-3274-9221
설립산업(주)	사무, 총무, 영업지원 사원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652-2701
엔젤퍼서비스	차량/오토바이 기사님 (초보자-책임지도)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11-618-3251
(주)영업엘엔피 광주지점	비비안 판매직	고졸/경력무관	1400~1600	12/31	062-524-6360
㈜아이캐스트	경리 경력직 / 웹프로그래머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10-3074-6123
㈜대광엔지니어링	토목설계 기술자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384-8240
동림전자(주)	제품개발, 생산관리, 품질관리 경력사원	고졸/경력3년	2200~2400	12/31	062-952-7272
㈜새론	반도체 계측 장비 개발 및 제조 엔지니어	대출/경력무관	회사내규	12/31	062-956-7774
㈜포리암인스넷	총무	고졸/경력5년	2200~2400	01/02	062-670-1700
한남세리미ك	연구소 팀장급 경력직	대출/경력3년	회사내규	01/02	061-392-4433
목화웨딩	[원장/예약실장/드레스실장/스텝] 신입 및 경력직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1/02	010-4423-1333

<광주집코리아 512-6210 제공>

## 기업대출 연체 11조

## 11월말 연체율 1.18%로 급등 ... 은행 건전성 악화

기업의 대출 연체율이 급상승함에 따라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11월 말 국내 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작년 동기 대비 0.26%포인트 상승한 1.18%로 2005년 말 1.21%를 기록한 이후 근 3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작년 말 0.74%에 불과하던 원화대출 연체율은 올해 3월 말 0.90%, 9월 말 0.97%로 상승 추세에 있다.

전체 원화대출 규모는 작년 11월 말 804조원에서 920조원으로 늘었고 연체율은 같은 기간 7조4천억원에서 10조9천억원으로 급증했다.

은행들은 원금 상환을 하루 이상 지연할 경우 '연체'로 분류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하면 '부실채권', 6~12개월 연체시 '회수의문', 12개월 이상 연체시 '추정손실'로 각각 구분한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1.59%로 작년 동기 대비 0.44%포인트 상승했다. 이 부문의 연체율은 작년 말 0.92%에서 3월 말 1.16%, 9월 말 1.30%로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11월 말에는 기업대출 428조원 중에 4조9천억원이 연체를 기록한 것에 비해 올해 11월 말에는 516조원 대출 중 8조2천억원이 연체된 상태다.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높은 대기업 대출 연체율은 0.34%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대출은 연체율이 1.86%로 작년 동기 대비 0.60%포인트 뛰어 올랐다.

중기대출 연체율은 작년 말 1.00%에 불과했지만 3월 말 1.29%, 9월 말 1.50%로 높아진 데 이어 11월 말에는 2006년 5월 1.91%를 기록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중기대출 연체율은 작년 11월 373조원에서 424조원으로 늘었고 연체율도 같은 기간 4조7천억원에서 7조9천억원으로 급증했다.

기업대출에 비해 가계대출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1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66%로 작년 동기 대비 0.01%포인트 하락했으며 주택담보대출 연체율도 0.48%로 같은 기간 0.03%포인트 낮아졌다.

## 농가·中企 3조8천억 지원

## 농협, 내년 상반기까지 사료업체 등에

농협은 23일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고 있는 농가와 중소기업에 내년 상반기 말까지 총3조8천억원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농협은 어려움에 처한 농가와 사료업체에 내년 6월말까지 1조8천억원의 농업자금을 지원키로 했으며 이중 환율상승으로 경영난에 봉착한 사료업체에 대해서는 우선 올해 말까지 2억 달러의 외화자금을 지원해줄 예정이다.

농협은 또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전용 대출 '프렌드론(Friend-Loan)'을 통해 이날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2조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이 대출은 일반대출에 비해 1.0~1.3%포인트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중소기업은 최대 10억원, 개인사업자는 최고 2억원 까지 가능하다.

/연합뉴스

## 휘발유값 다시 오른다

## 등·경유 등 관세율 1%→3% 인상

휘발유·등유·경유 등 유류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현재 1%에서 3%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정부가 유가급등 국면에 비상 가동했던 각종 비상 세제들을 원점 회귀시키면서 휘발유값의 경우 연초에만 1% 당 90원 이상의 상승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현재 120개인 할당관세 적용품목을 내년 상반기에는 74개로 축소 운영한다고 23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내년에 행정 1%인 원유 및 휘발유·등유·경유·중유 관세율을 2월에 2%, 3월에 3%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올해 유가급등에 따라 급격하게 할당관세 가동폭을 확대했지만 최근 유가 하락폭이 커 적용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현재 0%인 LPG는 1%로 상승폭을 줄이고 LNG는 1%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서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인 민생 인상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p